

봄철 안개에 시계제로... 서해안 선박사고 속출

승객 25명 태운 입자농협 페리 교각 충돌

신안 도초서 투표함 호송 선박 방향 상실도

블과 맞심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로 선박들이 교각을 들이받거나 항로를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교차가 큰 3~6월은 봄철 바다의 불청객인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농무(濃霧)'기로, 해마다 이 시기에는 선박사고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와 입자농협에 따르면 입자농협이 운영하는 입자농협 페리(300t)가 지난 13일 오후 8시8분께 신안군 지도읍과 입자도를 잇는 연륙교 공사 현장 교각을 들이받았다.

입자농협페리는 이날 오후 8시 지도 점압항을 출발한 지 8분 만에 짙은 안개 때문에 교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선박은 승객 25명과 차량 15대를 싣고 있었으며, 이날 오후 9시25분께 지도 진리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 선박은 사고가 난 뒤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8분께야 목포해경에 신고하는 등 늦장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일부 승객들은 입자보건의료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부두와 배 사이를 연결하는 경사판인 뱃머리 램프가 손상되면서 배에 실린 차량 15대가 즉시 하역하지 못했다.

앞서 신안에서는 투표함과 승객을 싣고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바다에 낀 농무로 인해 항로를 찾지 못하고 해매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도와 목포해경에 따르면 여객선 조양페리 2호(196t)가 13일 오후 8시1분께 신안군 도초도에서 약 2.8km 떨어진 해역에서 농무로 방향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조양페리 2호는 이날 신의도를 출발해 하지도, 장산도, 자라도를 거쳐 목포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배에는 승객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투표함이 4개 실려있었다. 해경은 즉시 출동해 이 선박을 장산도 방면으로 안전하게 인도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선박사고 669건 중 213건(31.8%)이 농무기에 발생했다.

이 시기 서·남해안 지역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남서쪽의 온난다습한 공기가 비교적 한랭한 해수면 위로 불어오기 때문이다. 즉 해수면의 따뜻한 공기와 찬

바닷물이 만나 안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서 기온차가 심한 것도 짙은 안개의 원인이다.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제로에 가까운 짙은 안개가 끼기도 해 충돌과 전복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해무는 사방이 뿔러 있는 바다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다.

실제 지난 1~13일 사이 서·남해안에는 5차례의 안개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안개에 의해 가시거리가 1km 이하일 때 안개주의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다발 해역에 함정과 항공기를 배치하는 등 농무해역 순찰 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총선 현수막 수거 광주 북구청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14일 오전 북구 신안동 신안교 교차로에서 4·13총선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대 총선 광주 당선자 5명 검찰 수사

선거사범 연루 전국 104명 입건... 19대보다 31% 늘어

20대 총선 광주지역 당선인 8명 중 5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104명에 달한다. 당선인 3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6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89명에 비해 3분의 1 정도 줄었다.

입건자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금배지를 단 당선인은 3명이다. 허위사실유언나 비방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내사 중인 당선인이 2명 더 있

다. 1명은 선관위가 수사의뢰했고, 다른 1명은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사조직을 설립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사조직(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1451명 가운데 당선인은 104명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당선자 79명보다 약 31%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인 무효가 되는 당선인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인 무효가 된다.

검찰과 함께 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에 속도를 낸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

불거리·A형 간염 기승

4월 발생 최고...손 잘 씻어야

'불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병원을 찾는 소아청소년이 늘어나고 전염력이 높은 A형 간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4~5월이라는 점에서 보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은 14일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인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가 주의해야 한다"며 "귀나 턱밑이 붓고 아프면 유행성 이하선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감염되면 2~3주의 잠복기를 거쳐 귀밑 침샘에 염증이 일어나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느껴진다. 귀나 턱밑이 부으면서 누를 때 아프면 병·의원에 방문해야 한다.

지난 2011~2015년 통계(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145개 기관 내원기준)를 보면 환자수는 4월부터 늘기 시작해 5~6월 피크를 보였다.

A형 간염도 봄철인 4월과 5월에 가장 기승을 부린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까지 3년간 A형 간염 환자수를 월별로 집계했을 때 1월 5.6%, 2월 8.6%, 3월 10.7%, 4월 11.2%, 5월 11.4% 순으로 많았다. 전염력이 매우 높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열과 함께 전신 피로감, 근육통이 생기며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을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날것이나 상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0 해질 19:05 달 뜨기 12:50 달 지기 01:57

화창한 하루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0/25	보성	맑음	6/19
목포	맑음	8/20	순천	맑음	9/21
여수	맑음	12/17	영광	맑음	6/25
나주	맑음	6/25	진도	맑음	6/19
완도	맑음	9/19	전주	맑음	10/24
구례	맑음	6/23	군산	맑음	7/22
강진	맑음	6/20	남원	맑음	8/24
해남	맑음	4/20	홍산도	맑음	8/16
장성	맑음	5/2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안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1.0~2.0
남해	안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동~동	1.0~2.5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 주의: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38	00:57
	20:55	14:20
여수	03:39	10:19
	16:35	22:26

◇ 주간 날씨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	☁	☁	☁	☁	☁	☁
12/18	12/18	10/18	10/21	11/20	10/21	9/20

소록도병원 '할매수녀' 10년만의 방문

병원 100주년 기념식 초청

소록도병원 '할매수녀' 광주일보 2월 1일자 2면가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지 10년만에 소록도를 다시 찾았다.

14일 고흥 소록도성당에 따르면 40여 년 동안 오로지 희생정신 하나로 소록도를 돌보던 마리안느(Marianne Stor) 수녀가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최근 방문, 소록도에 머물고 있다.

소록도 한센인들로부터 '할매수녀'로 불리는 외국인인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Margareth Pissarek) 수녀 등 2명이 다. 마가렛 수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번에도 마리안느 수녀만 소록도를 찾았다.

마리안느 수녀는 다음달 100주년 기념식 참석 외에 다른 외부활동을 삼간

채 한동안 소록도에 머물 예정이다.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할매 수녀'로 불리는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는 20대였던 1960년대 소록도를 찾아 한평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이들은 누구도 한센인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았을 때 비닐 장갑하나 끼지 않고 이들을 간호하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돌보았다.

하지만 10년 전 이들 할매수녀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소록도에 부담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만 달랑 남긴 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연히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소록도성당과 고흥군 등은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소록도에서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리안느 수녀를 소록도에 초청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iu@

세월호 참사 2주기 16일 전국에 '비'

전남 최고 80mm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중부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6일 낮부터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

내륙으로 확대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는 17일 낮부터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게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은 30~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2도, 낮 최고 기온은 15~20도 분포를 보겠다. /김경민기자 kki@

제55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스포츠 명품고장 망끝해남에서 개최됩니다.

힐링시티 해남에서 하나 되는 꿈의 체전!

2016.4.22.(금) ~ 4.25.(월) 해남우슬경기장 외 종목별 경기장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 개회식 당일 차량 놓고 오기 협조
- 시가지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이 없는 차량 우슬체육공원 출입 제한
- 운행일시: 4.22(금) 14:00~22:00
- 운행횟수: 매 20분 간격으로 2개 노선 순환 운행
- 대회관련 임시주차장 안내
- 보건소 입구, 해남광장 옆, 우슬식당 옆
- 성화송송구간 교통통제
- 1구간 4.22(금) 15:30~16:10 / 서림공원~군민광장
- 2구간 4.22(금) 15:30~16:10 / 한국병원~군민광장
- 마라톤 구간 교통통제
- 통제시간: 4.25(월) 09:30 ~ 11:30
- 통제구간: 대동사입터~대동사거리~농협주유소~티미널로터리~우슬경기장
- ※제전 홈페이지(http://www.55heanam.co) 내 "불편신고센터" 운영

[개회식]

- 식전행사 4.22(금) 16:00
- 북평옹달리타기, 푸른빛의 응비 등
- 축하공연 4.22(금) 19:30
- 장유정, 박상철 외 다수
- ※ 환상의 멀티미디어쇼 연출

[폐회식]

- 4.25(월) 14:00
- 우슬체육관
- 초청가수: 민지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부대행사

- 시군홍보전시관: 4.22(금)~4.25(월)
- 친환경 일번지 해남 농수특산물 홍보관: 4.22(금)~4.25(월)
- 해남미소 홍보관 및 이동택배서비스: 4.22(금)~4.25(월)
- 웰빙 해남 향토 음식점: 4.22(금)~4.25(월)
- 해남군 사진 전시회: 4.22(금)~4.25(월)
- 디카 사진 콘테스트: 4.22(금)~4.25(월)
- 프리지 공연: 4.22(금) 14:30~16:30
- 페이스페인팅: 4.22(금) 14:00~18:00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제5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